

<참고자료>

ISL 사건 -----	2
비자-마스터 카드 사건 -----	5
국제축구기금(GFF : Global Football Fund) -----	9
2002 월드컵을 향한 한일 간의 경쟁 -----	11
블래터의 기이한 제안들 -----	20

#### ◇ ISL 사건

2001년 5월 21일, ISL이라는 회사가 파산했다. ISL은 아디다스의 호르스트 다슬러와 일본 광고회사 텐츠가 합작해서 세운 스포츠 마케팅 회사이다. 다슬러는 원래 블래터를 고용했었고 블래터가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에도 그에게 월급을 주었다. 파산 당시 ISL은 FIFA, IOC, 국제육상연맹(IAAF)의 TV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파산은 FIFA에 최소 1억5천만 스위스 프랑의 손해를 입혔다. 실제 FIFA의 재정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FIFA는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수입을 담보로 은행에서 4억2천만 달러를 빌려야 했다.

당초 FIFA는 2001년 5월, ISL로부터 2천2백만 스위스 프랑을 받을 게 있다면서 ISL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하지만 ISL 사건이 FIFA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의 본격적인 스캔들이 된 뒤에도 블래터 회장은 ISL 사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2001년 10월, 블래터 회장은 집행위원들에게 전반적인 회계보고서가 아니라 FIFA의 재정상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냈다. 블래터 회장은 “...상황에서 잠정 검토가 전반적 회계감사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IFA에서 전반적 회계감사가 필요했다면 그 시점은 바로 이 때였다.

2001년 12월 FIFA 집행위원 24명중 나를 포함해 13명이 블래터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FIFA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위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블래터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임시 회계 감사 위원회(IAC)’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02년 4월, 블래터 회장은 IAC 활동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중단 이유에 대해 블래터는 내가 IAC의 비밀준수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위반이란 것은 내가 호주의 SBS TV와 인터뷰를 해서 FIFA의 잘못된 재정 운영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내가 곧바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명백하게 밝혔듯이, 똑같은 정보가 이미 다른 언론기관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내 인터뷰에는 비밀이랄 것이 없었다. 블래터는 내가 어떻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뻔뻔하고 오만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블래터의 FIFA 운영 방식이었다.

그리고는 2004년 6월 FIFA는 어떤 설명도 없이 ISL에 대한 소송을 취하였다. FIFA가 ISL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뒤 스위스 사법당국은 2005년 8월 ISL 파산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0년 5월, FIFA와 아벨란제, 텍세이라가 5백5십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내면서 종결됐다. FIFA는 배임으로, 아벨란제와 텍세이라는 ‘횡령과 배임 가능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2년 공개된 스위스 법원 문서에 따르면, ISL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아벨란제 회장과 텍세이라에게 2천2백만 스위스 프랑에 가까운 금액을 뇌물로 지급했다. 게다가 아벨란제와 텍세이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ISL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FIFA윤리위는 이 사건에 대해 2012년 딱 한 번 자체적인 ‘사실파악’을 시작했다. ISL이 FIFA에 주요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파산한 지 11년, 스위스 당국이 장기간 조사를 종료한 지 1년이 지난 뒤였다. 이 사실파악 과정을 통해 당시 블래터 사무총장이 어느 날 아벨란제에게 가는 것이라는 설명이 첨부된 1백50만 스위스 프랑의 돈이 ISL로부터 FIFA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3년 윤리위는 “FIFA의 회계책임자가 이것을 당시 블래터 사무총장에게 보여주었고 회계책임자는 이 돈을 ISL에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블래터 회장의 행동은 어설프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범죄나 윤리적 비리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블래터가 ‘어설프다’며 무죄방면해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집행위원들에게 알리고 조사를 개시했어야 했다.

#### ◇ 비자-마스터카드 사건

2006년 4월 마스터카드사가 FIF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스터카드와의 기존 계약이 만료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FIFA는 기존 계약자 우선협상권에도 불구하고 비자카드와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마스터카드가 1억8천만 달러의 계약을 제시하고 비자카드가 1억7천만 달러를 제시하자, FIFA는 비자카드에 마스터카드의 제안을 알려주어서 비자카드가 1억9천5백만 달러를 제안해 마스터카드를 제치고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006년 3월 FIFA는 비자카드와 계약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FIFA는 비자카드 이사회에서 승인받을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그런 다음 FIFA는 마스터카드에게 비자카드와 계약하겠다고 통보했다.

4월 4일 마스터카드는 만약 비자카드와 계약을 맺으면 FIFA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FA는 일을 진행시켜서 이틀 후인 4월 6일 비자카드와 계약했다. FIFA는 마스터카드가 경고하기 전에 비자카드와의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계약서의 서명 날짜를 4월3일로 고치고 비자카드 회장의 서명을 위조했다.

뉴욕 지방 법원은 결국 FIFA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2007년 6월 FIFA가 마스터카드에 9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종결됐다. 주심인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는

FIFA에 대한 경멸이 가득 찬 판결을 통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언급했다.

“FIFA측 협상 인사들이 거짓말했다”

“FIFA의 마케팅 국장이 거짓말했다”

“발케 국장이 거짓말했다”

“백색 거짓말”

“상업적 거짓말”

판사는 “차기 스폰서 선정을 위한 협상과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FIFA가 보인 행동은 전혀 페어플레이가 아니었고 스위스 법에 의해 부과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FIFA 회장이 내세우는 페어플레이라는 FIFA 스스로의 구호뿐 아니라)”고 말했다.

FIFA가 마스터카드와 법정 밖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을 때까지 FIFA 집행위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신문 보도를 통해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법원 판결문을 읽고는 깜짝 놀랐고 또한 실망했다.

2007년 6월 FIFA 집행위 회의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블래터는 보통 자잘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 막바지에 배치해놓은 ‘기타 토의’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잘 처리되었고 이제는 끝났다”  
고만 말했다.

그는 9천만 달러 중 3천만 달러는 FIFA가 마스터카드와 벌  
이고 있었던 상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고, 6천만 달러  
는 스폰서 소송을 끝내는데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마스터카드가 요구한 2억7천5백만 달러의 손실에 비  
교할 때 FIFA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재정적 결과”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교묘한 술책을 일삼다가, FIFA에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회장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실패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였다. 블래터 회장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해  
도 이슈를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발언을 위해 손을 들었다. 회의실내의  
수은주가 갑자기 몇 도는 떨어졌다. 블래터가 노려보는 가운  
데 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재정적 손실에 관한 것만은 아니  
라는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나는 FIFA가 이렇게 큰 재  
정적 손실을 입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나쁜 것은 ‘페  
어플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조직으로서 신뢰와 명  
성에 입은 타격이라고 말했다. 나는 FIFA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래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을 당시 FIFA 마케팅 국장이었던 제롬 발케와 다른 3명의 직원에게 돌렸다. 이들을 ‘협상 과정 중 반복적 부정직’ ‘FIFA내 의사 결정권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을 이유로 이들을 파면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블래터는 발케를 다시 불러들였을 뿐 아니라 사무총장으로 승진시켰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FIFA가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고 뉴욕 지방 법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스폰서 계약을 친구인 비자카드 회장에게 주고 자신의 심복을 사무총장으로 승진시켰다.



◇ 한국 2022월드컵 유치위의 국제축구기금(GFF) 공약

GFF는 2010년 10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리더스 인 풋볼’ 국제회의에서 한승주 당시 유치위원장이 발표한 것이었다. 나는 그 후에 집행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그들과 공유한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실이었다.

더욱이 GFF 공약에는 특별할 것도 없었다. FIFA가 모든 유치 신청 국가에 요구한 ‘축구 발전’ 계획에 맞춘 것이었다.

한국이 2002월드컵을 신청했을 때도 개최 후 예상되는 수익 3억 달러를 축구발전에 사용하겠다는 재정적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당시 한국은 월드컵 개최 자체가 충분한 혜택이라고 생각했다. 월드컵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제 축구계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영국 2018월드컵유치위는 ‘풋볼 유나이티드’ 기금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FIFA가 현재 축구 발전에 사용하는 지출과 같은 규모의 기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게 여러분의 대륙 연맹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상상해보라’

2022월드컵 유치를 신청한 카타르는 ‘태국과 나이지리아의 풀뿌리 및 영재 발굴 프로그램’ ‘네팔과 파키스탄의 16개 학교에 축구를 통한 지원’ ‘어려운 나라에 22개의 모듈화 스타

디엄 건설' 같은 것들을 제안했다. 영국의 기금 규모는 GFF의 몇 배가 됐을 것이다. 카타르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영국 유치위가 자신들도 같은 규모로 하겠다던 'FIFA가 현재 축구 발전에 사용하는 지출'이란 '재정 지원 프로그램(FAP)', '대륙연맹 발전 프로그램', '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인데 수년에 걸쳐 각국 협회에 수십억 달러가 제공되어왔다. GFF가 기금으로 운영되게 되어있던 것에 반해 이 FIFA 프로그램들은 매년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었다.

◇ 2002 월드컵을 향한 한일 간의 경쟁

1993년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에 선출되면서 나는 2002월드컵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서는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관심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사실 일본은 1990년에 이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었다. 1991년 일왕의 사촌인 노리히토 왕자가 유치위원회의 명예위원장이 되었다.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가 의회의 2002월드컵 유치위원장을 맡았다.

아벨란제 회장이 이미 일본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아벨란제는 일본의 무라타 다다오 전축구협회회장을 FIFA의 2002월드컵 조직위원으로 임명했다. 1993년 12월 나는 한국 유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흥구 당시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함께 1994미국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다. 추첨식후 대규모 만찬이 열렸는데 우리는 간신히 찬바람이 들어오는 문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의 무라타는 FIFA 월드컵 조직위원 자격으로 아벨란제 회장, 블래터 사무총장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아벨란제가 일본의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늦기는 했지만 2002월드컵 개최지를 결정하는 1996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1994년 5월, 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FIFA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1995년 2월, 한국은 FIFA에 공

식적으로 2002월드컵 유치 의향을 통보했다.

나는 만약 아시아에서 첫 번째 월드컵을 주최할 만한 나라가 있다면 그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축구선수들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언제나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한국팀이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때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다. 그 때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5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전 국토를 파괴했던 3년간의 전쟁이 끝난 다음해였다. 마지막 예선전에서 한국은 일본과 맞붙었다.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홈경기와 어웨이경기를 모두 일본 도쿄에서 치러야 했다. 하지만 한국은 첫 경기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스위스 본선에 진출했다.

2002월드컵 유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많이, 1954년, 1986년, 1990년, 1994년 네 차례나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반면에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다. 내가 1994년 처음 FIFA 부회장에 당선됐을 때 일본의 무라타 후보가 자신의 표를 포함해 겨우 2표를 얻었지만 나는 11표를 얻었다. 한국은 당연히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월드컵 개최국이 될 만한 나라였다.

1995년 7월, 나도 참석했던 1995년 5월 FIFA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다. FIFA는 뻔뻔스럽게 회의록에 손을 댔다. 원래 1996년 6월 결정하게 되어있는 2002월드컵 개최지

를 1996년 초에 결정하기로 집행위원 전원이 ‘합의’했다고 회의록은 적고 있었다. 회의록에 의하면, 이런 결정의 명목상 이유는 한국과 일본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었다는 것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은 3일 내에 답을 하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5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어떤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즉각 보냈다. 이것은 유치 활동 기간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유치를 방해하려는 기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일본보다 늦게 유치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한국에 불공정하고 불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축구경기에서 전반전에 어느 한 팀이 앞서가고 있다는 이유로 후반전을 취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995년 8월 나는 17세 이하 FIFA 경기가 열리고 있던 에콰도르에 있었다. 어느 날 아벨란제 회장이 나를 보자고 했다. 한국 유치위원인 이복형 대사와 함께 아벨란제 회장을 만났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벨란제 회장은 나를 질책하기 시작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이어졌다. 그는 약간 진정함 다음 내게 개최지 조기 결정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키지 않는 듯한 어조로 조기 결정을 더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아벨란제와 블래터가 유치 절차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한국의 유치를 방해하려고 했던 여러 시도

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싸움 이후 한국은 1995년 9월 공식적으로 2002월드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해 10월, 호르트 슈미트 독일축구협회(DBF)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월드컵 실사단이 한국의 준비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방한했다.

실사단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 뒤 12월초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명백하게 한국과 일본 공히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에 불리하도록 미묘하게 수정되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포함된 ‘제2의 보고서’가 1996년 1월 제출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해 3월 나는 블래터에게 ‘서명된 원본 보고서를 모든 집행위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낼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5월 다시 편지를 썼다.

믿을 수 없겠지만, 실사단의 최종 보고서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아벨란제 회장과 블래터 사무총장은 그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불편부당한 심판 역할을 하는 대신 ‘뻔뻔하고 오만하게 드러내놓고’ 편향성을 보였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들은 곧바로 물어버렸다. 이것은 그들이 FIFA를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얼마 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 아시아축구연맹(AFC)와 유럽축구연맹(UEFA),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이 제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시했다. 191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이 공동개최 아이디어에 찬성했다. 하지만 아벨란제 회장은 “모든 서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FIFA 집행위원회가 오는 6월1일 2002월드컵 개최국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그는 너무 늦어서 공동개최를 허가하도록 규칙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일본도 공동개최 아이디어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1996년 5월,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공동개최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은 투표를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아벨란제 회장과 블래터 사무총장, 그리고 일본은 ISL과 덴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벨란제와 블래터, 일본축구협회(JFA)는 투표로 가기만 하면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지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국이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었다. 아벨란제와 블래터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매우 ‘뻔뻔하고 오만하게 드러내놓고’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는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한 지지는 사

그라지고 한국에 대한 지지는 점점 늘어갔다.

최종적으로 투표 이틀 전인 5월 30일, 아벨란제 회장과 블래터 사무총장은 내키지는 않지만 일본 유치위원장인 미야자와 전 총리와 나가누마 JFA 회장을 불러 2002월드컵 공동개최를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었다. 일본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한일 2002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되었다.

아벨란제와 블래터에게 이것은 참담한 패배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일본에 월드컵을 주려고 했었다. 그들은 유치활동 기간을 줄이고, 실사보고서를 보류하고, 공동개최 요구에 저항하면서 한국의 유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나는 모든 단계마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투쟁했다.

아벨란제와 블래터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2002월드컵 공동개최 결정후 열린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블래터 사무총장은 결승전을 일본에서 열고 대회 이름을 '2002 일한FIFA 월드컵'으로 하자고 제



안했다. 나는 일본에서 결승전을 여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대회 이름에서 일본을 앞에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FIFA에는 4개의 공식 언어가 있는데 그 중 영어가 '제1언어'라고 답했다. 영어 알파벳으로는 일본이 앞선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가 '제1언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했다. 나는 그에게 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의 이름 자체가 불어이고 '대한민국'은 불어로 'Coree'이므로 'Japan'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번 공방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국-일본'으로 결정되었다.

블래터는 거짓말까지 해서 일본을 도와주려고 시도했다. 블래터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었다. 비자-마스터 카드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블래터는 FIFA 내에 거짓말하는 풍토를 만연케 했다.

블래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전에서 한국이 독일과 만났을 때 일본 도쿄에 임시 본부를 설치한 FIFA는 심판진 명단을 발표했다. 3명의 심판 모두가 독일계 스위스인이었다. 큰 국제경기가 있을 때면 심판진은 해당 팀들이 속하지 않은 대륙에서 선정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래서 이런 심판진 구성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다. 하지만 심판진의 편파성은 경기중 명백하게 드러났다. 의심스러운 휘슬 소리가 날 때마다 심판진은 한국 선수에게 벌칙을 내렸다. 하프타임 때 나는 블래터에게 직접 항의했다. 나는 3명의 독일계 스위스 심판을 선정한 것은 3명의 한국계 일본인을 심판으로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래터는 내 항의를 무시했고 경기는 진행됐다. 나중에 결승전이 열린 도쿄에서 어느 FIFA 부회장이 “블래터가 한국팀이 절대로 결승전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귀띔해주었다. 블래터가 한국과 독일 간 4강전의 심판진 3명을 모두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배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심판진을 배정하는 위원회가 블래터에게 3명의 독일계 스위스인을 배정한 사실에 항의했으나 블래터가 무시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블래터가 경기 규칙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보면 경악하게 된다. 결국 블래터는 일본에 호의적이어서 편향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를 반대해서 편향되었던 것이다.

나는 한일 2002월드컵이 양국간의 불행했던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전례 없이 양국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2002월드컵을 공동개최하기로 결정된 뒤에도 블래터는 자신에게 결정 권한도 없으면서 이번이 공동개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판했다. 블래터의 요지는 한일공동개최는 정몽준 때문에 된 것이고 FIFA에 나쁜 사례를 남긴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주요 축구 대회가 공동개최된 것은 그 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2000년 UEFA챔피언십 대회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공동개최였다. 한일 월드컵이 성공한 뒤 많은 나라들이 월드컵 공동개최를 신청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각각 2018월드컵을 신청했었다. UEFA의 경우, 2018챔피언십 대회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2012챔피언십 대회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공동개최했다.

최근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앞으로 최대 3~4개국이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 블래터의 기이한 제안들

1998년, 블래터는 FIFA 회장에 처음 당선된 직후 ‘전략 연구 위원회(Strategic Studies Committee)’를 구성했다. 이것은 FIFA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관장하는 집행위원회를 약화시키려는 기도였다. 블래터는 잭 워너 CONCACAF 회장, 홀리오 그론도나 FIFA 선임 부회장, 척 블레이저 CONCACAF 사무총장과 같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위원회에 배치했다.

1998년 가을 블래터는 자신의 첫 번째 아이디어를 집행위원회에 제안했다. IOC는 FIFA에 올림픽 축구팀의 나이제한(23세)을 없애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그렇게 되면 올림픽 팀과 월드컵 팀의 구성이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FIFA는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2년마다 월드컵 대회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 블래터의 제안은 와일드카드 선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집행위원들에 의해 거부됐다.

자신의 리더십이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한 블래터는 월드컵을 2년마다 열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렸다. IOC는 올림픽 대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이 아이디어에 반대했다. 그러자 블래터는 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월드컵 대회를 홀수해에 개최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것은 또 국제육상연맹(IAAF)의 세계선수권대회와 겹쳤다. 월드컵을 2년마다 개최할 경우

일정이 각 대륙연맹 대회와 겹치기 때문에 FIFA에도 혼란을 초래할 것이었다. 결국 이 제안은 폐기되었다.

블래터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할 때마다 FIFA 집행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그의 제안은 연륜 있는 FIFA 행정가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기이한 것들이었다. 그 제안들은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했다. 돌이켜보면 기껏해야 수준 낮은 코미디였다.